동화사, 현부 대선사 영결·다비식 엄수

1월 28일 세납 97세로 원적
1월 30일 경내 설법전 일원서
"스님 수행 정신 기리며 정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는 1월 30일 목은당 현부 대선사의 영결·다비식을 엄수했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는 1월 30일 경내 설법전 일원에서 조계종 초대 종정 석우 스님의 시봉이자 청빈 수행자로 존경을 받았던 목은당 현부 대선사의 영결·다비식을 엄수했다.

1월 28일 세납 97세, 법랍 78세로 원적에 든 현부 스님은 진주 다솔사에서 출가해 자운 율사에게 구족을 받았다. 상원사 청량선원, 월정사, 각화사, 봉암사, 통도사, 동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하며 오직 수행을 근본으로 삼아 평생을 정진해 왔다. 대구 용흥사를 창건해 정진하다가 만년에 조카 상좌인 오정 스님에게 후사를 맡기고 원적에 들었다.

임종 직전 오정 스님이 임종게를 묻자 현부 스님은 "새가 나무에 앉았다 떠나면 그만이지 임종게가 왜 필요하냐"고 했다. 그래도 한 말씀 해 달라고 청하자 "너도 이제 편하게 살아라"며 "다른 주위 분들에게 알려서 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라"하고는 고요히 입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결식에는 현부 스님을 그리는 당대 선지식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영결식을 증명한 전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는 "무유정법이요, 가고 옴이 없는 여여한 법에 다른 말을 붙일 수 없다"며 현부 스님을 기렸고, 금당선원 유나 효광 스님은 "한 생각 홀연히 일어났다 사라지듯 문득 오셨다 문득 가셨으니 한 티끌도 변하거나 달라짐이 없다"고 조사를 전했다.

전 원로의원 지성 스님, 동화사 율원장 현진 스님, 법규위원장 혜경 스님 등 문중의 주요 스님들과 가르침을 따랐던 후학 등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불 들어갑니다"를 외치는 거화 의식으로 다비식이 거행됐다. 다비 의식이 진행되는 중 무지개가 떠오르자 대중들은 환희심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현부 스님의 마지막 여정을 배웅했다.

선광 스님은 "스님께서 남기신 자비의 향기는 팔공산 골골마다 남아 수행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며 "우리 후학들이 더 열심히 수행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현부 스님의 초재는 2월 3일 동화사 봉서루에서 봉행됐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지역 상생 MOU

하나은행 대전세종영업본부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탄대 스님)과 하나은행 대전세종영업본부(대표 오세진)가 불교 전통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1월 30일 세종전통문화체험관 문화체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관장 탄대 스님(광제사 주지)과 선중 스님(사무국장), 오세진 대표를 비롯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전시·홍보 분야의 상호 교류를 비롯해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지원, 기관 간 정보 및 성과물 공유 등을 추진한다.

탄대 스님은 인사말에서 "하나은행 대전세종영업본부와 세종중앙금융센터 관계자들이 보여 준 신뢰와 성실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세종전통문화체험관과 금융기관이 동반자로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전북불교대학, 불교학과·법사과 졸업식

2월 11일 큰법당서… 66명 졸업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2월 1일 대학 4층 큰법당에서 제38회 불교학과, 제33회 법사과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권문일 불자를 비롯한 51명과 법사과 김선희 불자를 포함한 15명 등 총 66명의 불자가 졸업장을 받았다. 아울러 1년간 학업과 수행, 포교 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불자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이창구 학장은 졸업식사에서 "졸업은 흔히 학업을 마친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불교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업을 마친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오늘은 공부를 끝낸 날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내려놓는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중생 바라보는 수행자 되길"

비구니 승가대학 · 대학원 졸업식 잇달아



비구니 승가대학·대학원 졸업식이 잇달아 열렸다. 사진 왼쪽은 1월 30일 열린 운문사승가대학 제62회 및 한문불전대학원 제4회 졸업식, 사진 오른쪽은 2월 2일 열린 제63회 동학사승가대학 및 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제15회·연구과정 제4회 졸업식.

비구니 승가대학·대학원이 잇달아 졸업식을 열고 인천의 스승들을 배출했다.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는 1월 30일 청풍료에서 '운문사승가대학 제62회 및 한문불대학원 제4회 졸업식'을 열고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식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을 비롯해 주지 은광 스님, 학장 영덕 스님, 졸업생과 재학생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학인들의 새로운 앞날을 축하했다.

승가대학장 영덕 스님은 "배움과 깨달음의 성취를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며 승가와 사회, 나아가 전 인류가 지혜와 자비로 가득한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2200여 명 운문사의 한 사람으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초발심자의 마음으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운문사 주지 은광 스님은 "오늘은 운문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졸업생들이 힘차게 나아가는 첫날"이라며 "금강 같은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 혜명을 믿고 큰 은혜에 부합하는 화엄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무영 스님은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운문사의 청정한 가풍과 비구니 수행자로서의 당당한 자부심이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공주 동학사(주지 경원 스님)는 2월 2일 대웅전에서 '제63회 동학사승가대학 및 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제15회·연구과정 제4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승가대학 4명, 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4명, 연구과정 1명이 졸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승가대학 법우 스님과 대학원 전문과정 동일 스님, 연구과정 선해 스님이 수상했다. 마곡사 주지상은 승가대학 송연 스님과 대학원 전문과정 범경 스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회주상과 주지상, 학장상 시상도 진행됐다.

주지 경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졸업생 수행자 여러분께서는 부디 진리를 배워서 아는 것으로 졸업했다 하지 마시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졸업으로 삼길 바란다"며 "언젠가는 기필코 중생의 업을 졸업하고 부처님이 되는 것에 참다운 졸업의 의미가 있다"고 당부했다.

화엄승가대학원장 일초 스님은 "그동안 갈고닦은 바를 중생을 향해 회향하고, 마음을 낮은 곳에 내려놓고 중생을 바라볼 수 있는 수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승가대학장 명오 스님은 훈화에서 "졸업은 마침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며 "부처님께서 보이신 가르침의 길 안에서 고락을 경험하며 더욱 단단해지고, 자신에게 정직한 수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 유재상 충청지사장

창원 반야사, 설맞이 자비 나눔

회원구청에 쌀 150포대 전달



창원 반야사(주지 혜명 스님)가 설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을 펼쳤다.

반야사는 2월 3일 대웅전에서 '제31회 설맞이 자비의 백미나눔'을 열고 회원구청에 백미 150포대를 전달했다.〈사진〉 행사에는 주지 혜명 스님을 비롯해 경문 스님, 제종남 회원구청장, 강인숙 내서읍장, 이숙이 사회복지과장 등 기관·단체장과 신도회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주지 혜명 스님은 "30년 전, 1년 동안 저금통에 모은 금액을 이웃에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 이후 읍사무소, 구청 등과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나눔이 가능해졌다"며 "해마다 설과 추석에 백미 나눔을 이어 가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어려울수록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끊이지 않는 실천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종남 회원구청장은 "반야사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쌀을 꾸준히 기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만암 대종사 제69주기 추모다례재

백양사 2월 2일 대웅전 등서
"종단 중흥 이끈 선지식" 추모



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만암 종헌 대종사(曼庵 宗憲, 1876~1957)의 원력을 되새기는 추모의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2월 2일 대웅전과 조사전에서 '만암당 종헌 대종사 제69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 수좌 일수 스님, 주지 무공 스님을 비롯해 선원과 말사 주지 스님, 학교법인 정광학원 교직원들이 동참해 큰스님의 뜻을 기렸다.

주지 무공 스님은 행장 소개를 겸한 인사말을 통해 만암 스님의 생애를 조명하고 만암 스님이 백양사의 중흥조로서 남긴 족적을 강조했다. 무공 스님은 "1916년 폐허에 가까웠던 백양사의 주지로 재임하며 중창불사를 통해 오늘의 가람을 완성했고,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왜색불교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호 스님, 만해 스님과 함께 임제종 운동을 전개하고, 청류암 광성의숙을 설립해 승려들에게 근대 학문을 가르치며 인재 양성에 헌신했다"고 덧붙였다.

종단 차원의 공헌 또한 크다. 만암 대종사는 1948년 조선불교 교정에 취임하고 호남 고불총림을 결성했으며, 1954년에는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했다. 1957년 1월, 세수 81세 법납 71세로 좌탈입망했다.

원로의원 성오 스님은 추모사에서 "큰스님 기일이면 늘 눈이 많이 와 조사전 앞 눈을 치우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여러 큰스님들이 만암 스님을 이야기할 때 늘 '그 어른'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공덕을 담아 표현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수행과 학덕, 교육사업과 사회적 실천까지 어느 하나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른의 공로를 깊이 찬탄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양사는 교구종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선용 고운사 교구신도회장 취임

1월 30일 이 · 취임식 개최
"지역 포교 제2도약" 다짐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 신임 교구신도회장에 천성용 씨가 취임했다.〈사진〉

고운사는 1월 30일 화엄문화템플관에서 '제83차 교구종회 및 교구신도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주지 등운 스님을 비롯한 교구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신도회 관계자,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포교를 위한 새로운 정진을 다짐했다.

천성용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아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조계종 종지(宗旨)인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고 따르는 신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나로부터 우리로, 우리로부터 모두로'라는 슬로건 아래 본말사 스님과 신도들이 힘을 모은다면 고운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면사 "전국 25개 본사 중에도 모범이 되는 교구와 신도회를 이끄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 우리 교구의 미래와 희망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주지 등운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먼저 지난 임기 동안 교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임 회장단의 노고를 격려했다. 등운 스님은 "지난 산불 발생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신도회의 모습은 진정한 불자 수행의 귀감이었다"며 "지난 봄 산불로 많은 것이 타고 사라졌지만 기도할 수 있는 법당과 템플스테이 건물을 남겨 주셔서 우리가 천막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셨고, 대중들을 위한 공양과 화장실을 남겨 주셨다. 꼭 필요한 곳들이 남겨진 것도 부처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16교구가 전국 어느 교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서로 화합해 부처님 가장 큰 가르침인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도심 스님, 생명나눔에 500만원 쾌척

2월 2일 발전기금 전달



안성 연등사 주지 도심 스님(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 이사장)이 2월 2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쾌척했다.〈사진〉

서울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도심 스님은 "일면 큰스님께서 그동안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해 오셨는데 미처 동참하지 못해 늘 마음이 쓰였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생명나눔의 자비행과 우리 사회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면 스님은 "스님의 뜻을 받들어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내실을 다지는 소중한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승가회, 신년하례 및 모금전달식

1월 27일, 총무원 법당서



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총무원장 성보 스님)는 1월 27일 창원 총무원 법당에서 신년하례식 및 모금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총무원장 성보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종단의 화합과 자비 실천을 다짐했다.

성보 스님은 "병오년 한 해는 종도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